

미나토미라이 캠퍼스(가칭)에 관한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요코하마 시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본교를 ‘미나토미라이 21주오지구 43구역’의 사업 예정자로 선정한 취지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야시 후미코 요코하마 시장이 학교법인 카나가와대학이 사업 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본교가 제안한 ‘국제·일본’의 융합된 미래인 ‘창조·교류’ 캠퍼스에 관한 개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교가 펼쳐 나갈 ‘미나토미라이 캠퍼스(가칭) 구상’의 사업 개요를 마사노 유키노부 이사장, 카네코 요시오 학장이 설명하였습니다.

선정 이유

본건 제안은 요코하마에 기반을 둔 종합대학의 진출이며, 지적인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글로벌한 활력과 지역·산관학 연계 등도 기대할 수 있는 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법인 카나가와대학
이사장 마사노 유키노부

카나가와대학
학장 카네코 요시오